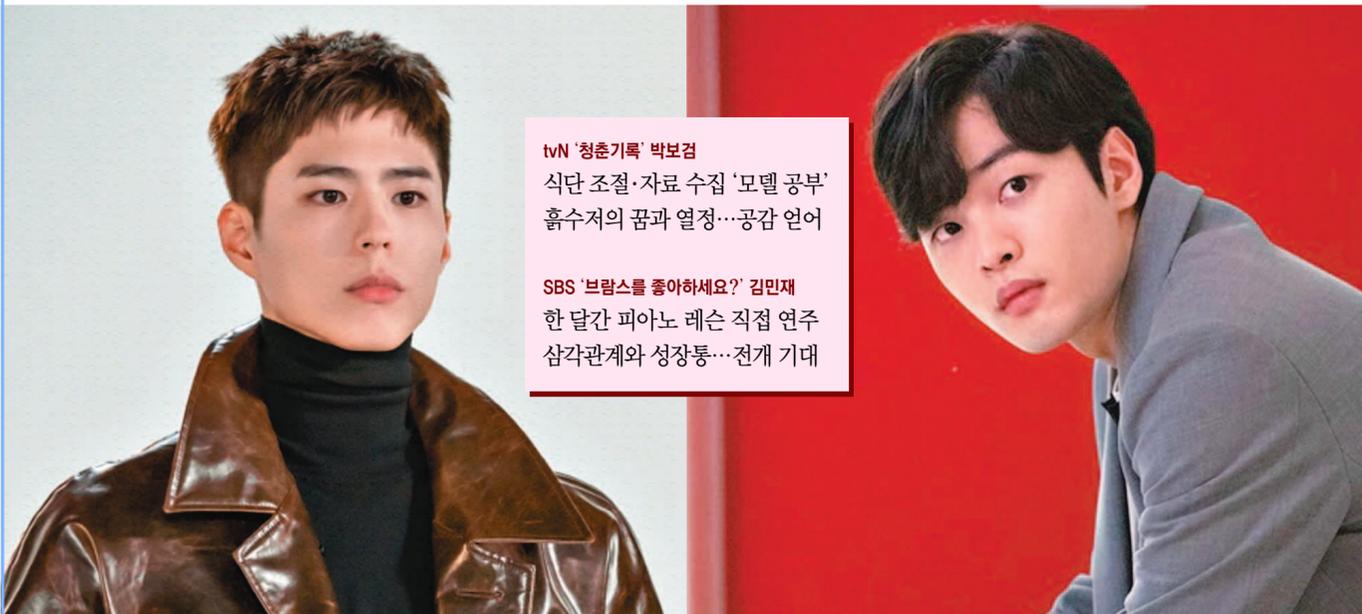


# 모델 박보검 vs 피아니스트 김민재...누굴 볼까?



**tvN '청춘기록' 박보검**  
 식단 조절·자료 수집 '모델 공부'  
 흡수저의 꿈과 열정...공감 얻어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김민재**  
 한 달간 피아노 레슨 직접 연주  
 삼각관계와 성장통...전개 기대

이 시대 청춘의 이야기를 그리는 두 주인공이 시청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tvN '청춘기록'의 박보검(왼쪽 사진)과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김민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음과 로맨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두 청춘의 '자화상'이 월화 안방극장을 수놓고 있다. 연기자 박보검과 김민재가 각각 주연 드라마 tvN '청춘기록'과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통해 청춘의 꿈과 사랑을 그리며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박보검은 '한류스타'다운 화제물로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고, 김민재는 섬세한 연기로 시청자 층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청춘기록'이 7.8%(15일·이하 닐슨코리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5.8%(14일)의 시청률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도 이들에게서 나온다.

●**모델로, 피아니스트로... '변신 또 변신'**  
 박보검은 극 중 모델 출신 연기자 역할을 맡았다. 패션쇼 무대 위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델의 모습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182cm의 큰 키 덕분에 수월하게 촬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박보검은 철저한 식단관리와 피나는 노력 끝에 모델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패션쇼 런웨이 영상, 화보,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했다.

박보검은 8월31일 입대하면서 활동을 중단한 상태지만, 공식 트위터 계정에 패션쇼 촬영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꾸준히 올리면서 시청자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시작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유명 피아니스트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라벨의 '치간느' 등 연주곡을 카메라 앞에서 직접 연주했다. 그는

"전문가 선생님께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맹훈련했다"며 "캐스팅 직후 한 달여 동안 식사 시간 이외에는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고 뒷이야기를 밝혔다.

노력에 힘입어 클래식 음악 팬들의 주목도 받고 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랑랑은 12일 'SBS 뉴스8'과 인터뷰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같은 드라마가 나오는 것은 클래식 음악계에 좋은 일"이라며 애시청자임을 드러냈다.

●**로맨스·꿈·열정, 폭 넓은 시청자 노력**  
 청춘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로맨스와 꿈을 향한 열정이다. 박보검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박소담과 뜻밖의 로맨스를 쌓아간다. 가난한

'흡수저' 집안 출신으로, 연기자가 되기 위해 맨몸으로 부딪치면서도 깨끗하게 꿈을 펼쳐나가고, 이를 통해 3040세대 시청자의 공감대까지 형성하고 있다.

김민재는 음악을 매개로 만난 박은빈, 오랜 짝사랑 상대인 박지현과 엮인 로맨스로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박지현이 뒤늦게 김민재에 '직진'하면서 사랑과 우정 모두 위태로워지는 등 복잡한 삼각관계가 자극적일 것 같지만 담백한 분위기로 이를 그려내 젊은 시청자들로부터 '독특하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덕분에 온라인상에서 인기가 높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공개되는 각 회 영상 클립이 많게는 20만뷰를 넘어서는 등 높은 조회 수가 이를 말해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고작 20만 관객...실사판 '물란' 혹독한 신고식

개봉 연기·정치적 이슈 등 '불운' 코로나 악재 뚫고 반등할지 관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가 없었어도 결과는 같았을까. 할리우드 스튜디오 월트디즈니컴퍼니의 실사영화 '물란'이 국내에서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극장 관객이 급감한 직격탄 속에 17일 개봉 이후 첫 주말인 20일까지 누적 20만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동원에 그쳤다. 토요일인 19일 하루 5만1271명에 멈추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상영 2주째에도 반등 기회를 잡을지 미지수다.

이대로라면 디즈니가 과거 인기 애니메

이션을 실사영화로 옮기는 라이브액션 시리즈 가운데 '물란'은 가장 저조한 성적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5월과 7월 개봉한 '알라딘'과 '라이언 킹'의 각 1270만 명과 470만 관객, 이전 '정글북'(253만명)과 '미녀와 야수'(515만명)와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하다.

당초 올해 3월 공개하려던 '물란'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여파로 몇 차례 시기를 미뤘다. 처음 북미 개봉을 앞둔 3월 초 현지 프리미어 시사를 통해 평단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을 연기한 뒤 정치적인 시선에까지 휘말리는 불운을 겪었다. 특히 최근 가열된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디즈니가 친중국 성향 영화를 만들었다는 눈길도 받고



물란

있다. 코로나19와 정치적인 이슈를 배제한다면 '물란'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여성 히어로 영화로 평가받을 만하다. 고대 중국 여 전사 화목란의 실화를 옮긴 1998년 애니메이션을 다시 실사로 바꾼 '물란'은 평범한 인물이 용기를 갖고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연출자인 니키 카로 감독은 "작은 마을의 평범한 소녀가 병사에서,

전사로, 다시 영웅이 되어가는 여정은 설화가 처음 쓰인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감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물란'은 디즈니의 기존 라이브액션 시리즈와도 차이가 뚜렷하다. '라이언 킹'과 '미녀와 야수' 등이 원작의 작은 부분까지 그대로 따랐다면, '물란'은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해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이런 차이를 낮설게 받아들이는 원작 팬들 사이에서 작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탄압한 경찰 편을 들어 '국제적 미운털'이 박힌 주인공 류이페이(유역비)는 부정적인 스캔들에도 이번 영화를 통해 중국을 넘어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고 있다. 드라마틱한 성장을 표현한 연기력, 시선을 땔 수 없는 비주얼로 향후 활약에 기대를 갖게 한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 日 흔드는 '사랑의 불시착'...남성이 더 열광

여성보다 10%p 높은 97.1% 호감 주연 연기력·남북 차이 등에 관심

일본 한류를 재점화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현지 인기에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여성 중심의 소비에 힘입는다는 시선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중음악 차트로도 유명한 일본의 오리콘 뉴스는 최근 '사랑의 불시착'의 현지 인기 요인을 분석하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2월 온라인 동영

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현지 공개된 드라마를 본 143명의 이용자들이 응한 이번 조사에서 92.3%, 132명이 호감을 표했다. 이 가운데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10%포인트 많은 97.1%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은 방송 초반부터 드라마에 관심을 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4~5월 '집콕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들은 여성들과 함께 '주연들의 연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남성 응답이 70.1%(복수응답), 여성 83.1%였다.

사랑의 불시착



주연인 현빈과 손예진 '연기력'과 '미남미녀' 등 호평이 이어졌다.

하지만 또 다른 호감의 요인에서는 답변이 달랐다. 여성들이 남북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금단의 러브스토리'(23.1%)와 '등장인물들의 유머러스함'(9.2%)

을 2·3번째로 꼽은 것과 달리 남성들은 '남북한의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11.9%)와 '남북분단의 배경'(10.4%)을 호감의 이유로 꼽았다.

오리콘 뉴스는 "드라마 '겨울연가' 이후 많은 한국 작품이 방송됐다. '대장금' 등 역사 드라마가 많은 남성 시청자를 모은 것에 비해 남북한이 무대인 '사랑의 불시착'의 설정에 남성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납득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영상콘텐츠 순위 집계, 발표하는 플랫폼에 따르면 '사랑의 불시착'은 19일 현재 일본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2위를 차지했다. 2월 공개 이후 7개월여 동안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김영희, 야구선수 출신 윤승열과 내년 결혼



김영희

개그우먼 김영희(37)가 열 살 연하의 전 프로야구 선수와 내년 초 결혼한다. 김영희는 20일 SNS를 통해 "저보다 더 저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밝혔다. 예비신랑은 프로야구 전 한화이글스 출신 윤승열(27)이다. 윤승열은 지난해 은퇴하고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다 올해 5월쯤부터 사랑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희는 이날 "올해 생각했던 결혼식이 시기상 내년으로 미뤄졌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결혼이니만큼 더욱 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희는 2010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2TV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해왔다.

#### BTS 영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24일 개봉

그룹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네 번째 영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더 무비'를 24일 공개한다. 전 CJ CGV에서 단독 개봉하는 영화는 방탄소년단이 영국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친 공연 등 지난해 스타디움 투어에 나선 모습을 중심으로 그 뒷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은 개봉을 앞두고 20일 오후 예매율 50%(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육박하는 수치로 1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브링 더 소울:더 무비'를 선보이는 등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더 무비'를 포함해 모두 네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해왔다.

#### AOA 출신 초아, 유튜브 활동 통해 복귀



초아

결그룹 AOA 출신 초아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활동 복귀를 알렸다. 초아는 최근 유튜브 채널 '초아 CHOA'의 문을 열고 팬들에게 인사했다. 하얀 셔츠를 입고 통기타를 치며 마른피아의 '걸스 라이크 유'를 부르며 영상이다. 그는 앞서 SNS를 통해 "그동안 걱정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건강도 잘 챙기고,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분들 마음에 정말 감사하며 지냈다"면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초아는 2012년 AOA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7년 6월 탈퇴한 뒤 후 연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KBS 2TV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 OST에 참여했다.

#### 슈주 규현 새 싱글 뮤비에 유연석 출연

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과 연기자 유연석이 손을 잡았다. 규현이 7월 'Dreaming(드림링)'에 이어 'PROJECT:季(계)'의 새로운 싱글을 10월8일 내놓는 가운데 유연석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 'PROJECT:季'는 규현이 1년에 걸쳐 계절마다 신곡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노래는 가을 시즌에 어울리는 감수성을 담아내며, 유연석 역시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작품에 출연한다. 두 사람은 올해 8월28일 개막한 뮤지컬 '베르테르'에 베르테르 역으로 더블 캐스팅돼 인연을 맺었다.

#### 정이삭 감독, '너의 이름은.' 美 실사판 연출

배우 윤여정, 한예리 등이 주연한 '미나리'로 미국의 최고 권위 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미국명 리 아이자 정)이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할리우드 실사판을 연출한다. '너의 이름은.'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2017년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 375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한 소년과 소녀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다. 정 감독은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미나리'로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